

성소 강론

I.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시73:16,17]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序 시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다. 아삽은 성전 찬양대 지휘자였다. 그가 지은 시일 수도 있고 그가 편집한 시일 수도 있다. 어쨌든,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인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심기가 불편했다. 하나님 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전혀 공평하지 않다. 그 이유를 알기가 아주 곤란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유를 알고 찬양한다.

성소는 우리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성소의 자세한 것은 원장 목사님이 강론하실 것이다. 이 시간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알게 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 불공평한 세상

[시73:1-14]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4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5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6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7 살찌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8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9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0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기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12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하도다 13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혀되도다 14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불평할 만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자주 가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질시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2. 문제의 해결

[시73:15-17]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궤휼을 행하였으리이다 16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은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불평으로 끝내지 않고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의 해결을 보았다.

성소에 가보니 그 잘 나가던 악인의 종국이 보였다.

[시73:18-22]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랍으로 전멸하였나이다 20 주여 사람이 깨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21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22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3. 성소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시73:23-25]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불드셨나이다 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 1).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오른손을 항상 붙잡고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
- 2). 성소에서 주님의 교훈과 영광에 이르는 길을 보았다.
- 3). 형통하게 보이는 것은 단지 꿈에 보는 현상일 뿐이다.
- 4). 종국적으로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절한다.

4.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해 주기 원하는 것

성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계시되어 있다. 그것은 사람을 살려서 영생하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마음이 정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시73: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어떻게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가? 우리가 노력하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셔야 된다.

정결은 “바르”인데 구약에 7회 나타난다(욥11:4, 시19:8, 24:4, 73:1, 잠14:4, 아6:9,10). 대부분 도덕성이 탁월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 같다. 이 도덕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만 회복된다.

[시51:10] 하나님아 내 속에 정한(타헤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정한 마음은 하나님아 창조하셔야 한다. 마음만 창조하시는 것은 사람을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성소에는 이것이 계시되어 있다. 시인은 성소에서 이것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행사를 보았으며, 악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았다. 이제는 성소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자.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떤지 아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조처를 취하셨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그것이 성소에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알아보자.

성소에 이런 사실들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적은 성소를 파괴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한다. 시74편은 이것을 계시하고 있다.

II. 하나님의 시각(視角)

[마8:21,22]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은 우리와 다르다.

1) 살았으나 죽은 사람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로 보신다. 이유는 그들은 죽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한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것은 사람이 육체뿐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유19]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육체뿐이라는 말은 성령이 없다는 말이다.

[시79:38]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창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었다라고 번역 할 수 있는 말이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성령께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엡4: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 곧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육체뿐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죽은 자들이라고 한다.

요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죽은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들을 수 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것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한다.

엡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문에는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공동번역).

죄와 허물로 죽었다. 허물은 “파라프토마”인데, 옆으로 미끄러졌다는 말이고, 죄 “하마르티아”는 과녁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다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이다. 그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은 자들이 된 것이다.

2). 사람 창조 과정

[창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1:26,27에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2장에 그 방법과 차례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아래 말씀을 하셨다.

[창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고 먹지 않는 일은 중요하다. 인간이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이 일에 관련이 되어 있다. 지금도 그렇고 영생의 생명도 그랬다.

[창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기 전에 철 명령을 주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왜 그랬을까? 생명의 일원성의 원리를 세우신 것이다.

[창2:21-23]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쥐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쥐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쥐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다. 왜 그럴까?

[고전 11: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낸으며.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낸기 때문이다. 낸다는 말은 분명하다. 체질과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결혼시키시고 축복하셨다.

[창 1:28]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으로 지구의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 창조되었다. 이 생육의 원리는 생명의 일원성, 곧 생명은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을 분명히 계시한다.

생명은 하나님-->아담-->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에게서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죽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하신 것이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에게 생명의 줄을 연결시키셨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생명의 기운을 받은 존재들은 생명현상을 나타낼 뿐 생명은 아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생명줄을 끊으면 생명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사망이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이 줄을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고하셨다. 아담은 생명을 잘 지켜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할 지구의 모든 생명이 아담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자를 만드셔서 이런 사실을 아담에게 확인시켰다.

3) 생명 줄을 끊다

[창 3:4-7]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족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먹고 생명 줄을 끊었다. 결과는 생명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여자만 먹었다면, 아직 남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나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버린 것이다.

[창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窮地 딜레마dilemma. 두 명령 사이에 궁지에 빠졌다. 해결해야 한다. 이 질문은 비장한 질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실 것이다. 이 질문은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창3:17-19]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 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신다.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씀 전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가장 긴 예언이고 가장 근본적인 예언이다. 원 복음, 세 가지 사실이 예언되었다. 대쟁투의 역사를 선포하신 것이다.

1. 구주의 탄생- 여자의 후손
2. 구주의 고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함.
3. 구주의 승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함.

여기 나타난 이 셋은 지구 역사 무대에 주역들이다. 지구의 역사는 뱀의 편에 선 사람들을 곧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편

에 선 사람들의 투쟁과 뱀과 여자의 후손의 투쟁의 역사이다.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업이고 이 사업에 음양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아담은 이 말의 뜻을 알았다. 자기가 사망이 된 것과 자신에게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이어줄 것을 알았다. 그 기간 동안 자기 생명이 유예될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창3:20]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의 믿음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다.

[창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하시니라.

4) 여자의 후손

[갈4:4] 때가 차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창3:15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은 때가 찼을 때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 세상에 탄생했다.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 하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사7:14에 분명히 밝혔다.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Ιαπθένος* 알마, 베틀라

[마1:23-25]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세상의 구주는 처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담의 후손, 곧 남자의 후손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세상 마지막에 태어날 아이도 이미 죽었다.

[시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임태하였나이다.

모든 갓난아이도 죄인이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생명으로 여자의 태를 빌어 오신 산 자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할 수 있다.

[행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담도 이것을 알았고 여자도 이것을 알았다. 여자는 하와라는 이름을 얻고 기뻐했다. 자기에게서 마귀를 멀힐 자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열망했다.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자 그는 얻었다고 기뻐했다. 마귀의 머리를 상할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는 남자의 후손이다.

[창4:1]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는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다. 여자의 후손은 동침하지 않고 낳아야 한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분명히 밝혔다. (1:25).

예수만이 구주이시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이것이 죄이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전에는 다 육체의 생명만 허락되어 있다. 그동안 영생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 기간을 은혜의 받을 때라 하고 구원의 날이라고 한다(고후6:2). 이것이 시간이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분명히 이해하고 증거해야 한다. 성소는 이것을 잘 계시해 주고 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자.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意圖)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사 9:6).(부조 33쪽)

III. 성소, 삼중 구원의 계시

[요16:8-11]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소적 구조로 계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위의 말씀은 이 사실을 극명하게 가르치신 내용이다. 또한 계시록도 그렇다.

성소적 구조란, 삼중 구조, 곧 둘과 성소의 첫째 칸인 성소와 둘째 칸 곧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영역을 가르치며, 구원의 삼중성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성령의 일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16:8).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한다. 즉 삼중으로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한 책망은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다. 여기의 저희는 세상 사람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심으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속죄함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이해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의에 대한 책망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는 “저희가” 아니요 “너희가”이다. 이 너희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뜻한다. 즉 오늘 우리들도 해당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는 말은 이해하기 아주 어렵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소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된다.

심판에 대한 책망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인데, 사단의 패배를 뜻한다. 사단은 더 이상 죄를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심판은, 있을 것을 영원히 있게 하고 없을 것을 영원히 없게 하는 일이다. 세상 임금은 영원히 없어져야 할 존재의 대표이다. 그래서 의가 된 사람들은 영원히 있게 될 것이고 죄로 남은 사람들은 사단과 함께 영원히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소의 구조에 맞추어진 말씀이다.

성소는 3중 구조,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속 사업의 성질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소 구조로 나타내 주신 바로 그런 직무를 행하시므로 구속을 성취하신다.

2. 성소의 뜰

성소는 길이가 100규빗 나비가 50규빗이 되도록 휘장을 둘러쳐서 장방형(長方形) 대지를 만들고, 길이 50규빗 지점에서 성막을 세우되 성막의 길이가 30규빗, 나비가 10규빗이 되게 하며, 그것을 두 칸으로 나누되 성막 입구에서 20규빗 되는 지점에 휘장을 드리워 그 앞 칸을 성소, 그 뒤 칸을 지성소로 구분하게 하였다. 지성소는 길이, 나비, 높이가 똑같이 10규빗이 되어 정육면체가 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성소는 뜰과, 첫째 칸인 성소와 둘째 칸인 지성소로 나뉘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40:6-8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 두명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레4:23,24]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 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찌니 이는 속죄제라.

[레5: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짐승이 죽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을 뜻한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죽은 짐승의 의미를 재현하는 것이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죄인 대신 죄를 알지도 못하는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 같은 예수께서 죄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을 믿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여 죄인은 죽고,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탄생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첫째 단계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을 흔히 **죄의 징크에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 죄, 곧 죽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존재가 되는 구원이다.

“죄, 곧 죽어서 없어진 상태”라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죄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죽은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은 자로 간주하시는 것이다 (고전15:22).

[요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소 뜰에서 하는 봉사는 이렇게 죽어 없어진 존재가 예수의 대속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구원의 첫째 단계인 것이다.

[출40:30-32]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찢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찢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찢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죄를 자복하고 성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침례로 하나님과 서약하는 것을 뜻한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된 것이다.

[롬6:10,11]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들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죽어 없어진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죄의 용서를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삶이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기구의 의미를 좋아 살게 된다. 그것은 성소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구속 사업에서 성령께서 담당하시는 몫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성소, 첫 칸

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리거나, 혹은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다. 그래서 죄인의 죄는 용서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죄인은 용서받았으나, 그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 덮여져 보이지 않게 된다. 그것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피로 덮여 있는 죄는 대속죄일에 도말될 때에 죄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려서 희생의 피를 성소 휘장 앞에 뿌리는 일로 죄인은 용서받으나 죄는 피에 덮인 상태로 대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는 셈이다.

[레4:16,17]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레4:16,17]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그러나 이런 방법의 봉사는 개인들의 속죄제에는 얼마나 적용하였는지는 모를 일이다. 이것은 회중이 잘못 하였을 때나,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방법이다(레4:1-21). 개인의 속죄제는 기록에 의하면 번제단 뿔에 희생의 피를 바르고 번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드렸다(레4:22-35).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하므로 온 회중의 죄는 속죄되고 의롭다는 선언을 듣는다.

만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뜰을 그냥 걷고 있다면 짐승은 죽었으나 죄인들의 속죄는 선포되지 않고 의롭다는 선포도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회개한 죄인들인 이스라엘 회중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은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요16:10)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

[히8: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좋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히9:11-14]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설기게 못하겠느뇨?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선언하신다.

[히12: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뿐만 피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호소하는 피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롬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3: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의에 대하여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소에 대한 계시를 깨달을 때에 분명히 이해되는 말씀이다. 복음이 성소구조 안에서 계시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속죄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는 판정을 얻은 사람들은 성소 안의 삶을 살게 된다. 성소 안의 삶은 의를 생활하는 삶을 뜻한다. 그는 의롭다고 판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성소 기구로 구체화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소 첫 칸에 있는 기구들이다.

이 성소의 첫 칸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다. 떡 상, 등대, 분향단이다.

1) 떡 상

사람의 생명은 먹는 것으로 유지된다. 무엇을 먹느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체질을 결정한다.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그 의를 계속 유지할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다. 의는 영생의 생명인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을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셨다.

[요6:33-35]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계속 유지하며 예수 안에서 얻은 영생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여지려고 하면(요10:10) 생명의 떡인 예수를 날마다 먹어야 한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의 말씀도 생명이다.

[요일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다. [행5: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받고 새 생명, 곧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그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이다(요6:27, 68).

2) 등대

[계1: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금 등대는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죄를 받고 중생한 의인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기관이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 빛은 모든 신앙적 도덕적 선행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도덕

적이어야 하고 착한 행실로 삶이 이어져야 한다.

[마5: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생명, 곧 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 물을 낼 수 없다(약3:11). 생명에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오고 사망에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다.

3)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상징한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계8:3,4]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5:8] 책을 치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시141: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비시는 기도도 포함된다.

[히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사실도 성경은 계시한다.

[롬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

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분향단은 주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사실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성소 첫 칸의 이 기구들은 회개하고 구원 얻어 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계시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교회생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생활로 세상에 빛이 되며, 날마다 기도로 생활을 생명의 승리로 이루어 가는 자들인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둘째 단계인 죄의 세력에서 날마다 이기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이 얻은 의를 계속 지키는 것인데 곧 영생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4. 지성소

성소의 세 부분 중 마지막 부분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고 대 제사장도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속죄일인 7월 10일에만 성소정결 봉사를 위하여 들어간다. [히9: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속죄일은 속함을 받은 사람을 영원히 의로 확정하는 날이다. 회개한 죄인은 용서받았으나 그 죄는 피에 덮여진 상태로 성소에 남아 있다. 다만 피로 덮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속죄일에는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는 일을 한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없지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1년 중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도말되는 때에 회개하지 않은 죄와 함께 죄인도 도말되어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예언의 신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소망 107).

이것을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 심판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죄와 함께 도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언약의 돌비와 시은좌(속죄소)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형이며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속죄일에 분명히 드러난다.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후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없는 자들인데, 이날 그 없어짐이 현실화한다. 이때 까지 유예되어온 삶이 끝나는 것이다.

회개하고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된 자들은 그 생명이 현실화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영화(榮化)라고 한다.

이것이 구원의 **셋째 계단** 곧 구원의 완성이다. 성소는 구원의 삼중성을 밝히 계시해 준다. 즉 죄의 정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죄의 세력에서 구원 받는 것, 그리고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준다.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증거 받는다. 그리고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밤낮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되는 자리에 이른 것이다(계7:15, 22:4). 이것이 구원의 **셋째 단계**인 **객관적인 죄의 존재가 없어지는 구원**인 것이다. 이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 상태가 고정될 것이다.

심판으로 이러한 진상이 드러난다. 심판은 성소의 넉넉한 은혜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자들이 의의 생명을 계속 잘 유지하는 자들임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은 자들은 달아보아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소적 현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말씀을 먹고, 교회 생활을 분명히 하고, 기도 호흡을 하는 삶을 계속할 때 우리의 구원 얻은 생명이 그날까지 보전될 것이고, 그 속죄일 곧 심판의 날에 생명 있는 존재로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장본인인 세상 임금과 함께 영원히 없어지고 말 것이다.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하는 아사셀 엽소에게 희생 짐승의 피로 덮여서 보이지 않았으나 아직 그 실상이 남아 있는 모든 죄

를 거두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하여 죄를 짓게 한 모든 책임과 그가 짓게 한 모든 죄를 그것이 지고 광야 무인지경에 내어 놓아 거기서 죽음으로 죄 자체가 영원히 도말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요16:8-11).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속죄일의 심판으로 세상 임금 사단이 완전히 정죄되어 영원히 없어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그 죄를 전혀 기억하지도 않는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소는 구원의 삼중성과 성도의 삶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것이다.

IV. 성소, 언약궤, 곧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

[출25:21,22] 속죄소를 궤위에 얹고 내가 네게 출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이르리라.

지성소를 “코데쉬 하카다침(고례하나님의 궤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 만큼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이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다. 언약궤는 흔히 법궤라고도 하는데 궤 안에 십계명 돌 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법궤라고 번역된 것은 레위기 16장 2절에 한 번만 나오는 것 같다. 원문은 그냥 궤(아론 가방)이다.

이 언약궤의 중심은 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 판이라고 흔히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시은좌(施恩座)가 중심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장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의 제도가 어떤지를 언약궤가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은 성소를 통하여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셨다. 하늘의 정치는 숨겨놓은 비밀이 없다. 아무리 공개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비밀인 그런 비밀이 있을 뿐이다.

이 장에서 언약궤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보좌의 뜻을 공부하려고 한다.

1. 언약궤의 구조

출애굽기 25:10~22에는 언약궤를 만드는 법도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짜고 윗가로 돌아

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어서 궤를 떼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젠대로 두고 빼어 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염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조각목(皂角木)은 가시나무다. 영어로는 아카시아라고 번역되었다. 히브리말로는 깃딤이다. 아마 시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생(自生)하는 억센 가시나무일 것이다. 어떤 성경 사전에는 나무 결이 치밀하고 견고한 가시나무라고 했다.

광야에서 모세의 지휘로 만든 성소의 나무 재료는 모두 이 조각목이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소의 널판자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를 다듬어서 순금으로 완전히 입혔다. 곁에 보이는 것은 순금이었고 나무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언약궤도 물론 그렇다.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 곧 십계명 판을 넣었다.

그 후에 속죄소(贖罪所) 또는 시온좌라고 말하는 뚜껑을 덮었다. 이 뚜껑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보좌를 상징한다. 아니 광야 여행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보좌에 좌정하셨다. 그래서 거기에는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이라 하여 세키나라고 부른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임을 설명해 주신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8: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지으라고 하셨는데(출25:8,9)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시은좌 곧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이름을 한 궤 뚜껑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분명한 것이다.

2.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를 궤위에 얹고 내가 네게 출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이르리라”(출25:21,22).

언약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는 또한 시은좌(施恩座)이다. 즉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이다.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 아니라”(히4:16)라고 계시한다. 성소의 언약궤의 모든 제도가 바로 이 은혜의 보좌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이다.

이 보좌를 표상하는 속죄소(시은좌) 밑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하나님의 법 곧 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시97:2).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시89:14).

하나님께서 보좌의 모형을 언약궤로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십계명을 새긴 돌 판을 넣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계명을 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

님의 보좌를 치고 허는 행위이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출17:16). 이 본문 밑에는 이런 난하주(欄下註)가 있다. “아말렉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사단이 최초로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 그것은 사단이 된 루스벨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이시며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하였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칠 수 있는가? 곧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므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만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딤전3:6). 새로 입교한 자를 교회의 장로로 세우면 교만하여지기 쉽다. 그 교만은 바로 마귀가 정죄 받은 죄목이라고 계시한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시 119:85). 주님의 법을 쫓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분명히 계시하지 않았는가? 사단의 이런 시도를 성경은 이렇게 계시한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거리라 하도다”(사14:13,14).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히1:8). 그처럼 그 보좌의 기초인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하다. 보좌의 모형인 언약궤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

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28:9)고 가르치신 것이다.

3.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

출애굽기를 읽으면 언약궤 안에 든 물건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신약성경에는 그것은 명료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사면을 금으로 쌓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히9:4).

언약궤 안에는 처음에는 침계명의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 더라”(왕상8:9).

그러나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항아리와 지팡이를 궤 안에 넣고 이동했을 것이며, 유대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에 언약궤를 숨기면서 만나 항아리와 짹난 지팡이를 함께 궤 안에 넣어 보관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실 진리가 있는 것을 암시한다.

두 돌판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일4:8), 침계명은 사랑을 인생들에게 구체화시켜서 보여주신 것으로 신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마22:36~40).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8T 207). 그러므로 침계명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상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금 항아리에 넣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成肉身을 나타낸다. 요한복음 6:32~35에서 예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

짬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낸다. 이 지팡이는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인데,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지팡이는 심히 말랐고 전혀 생명력이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움이 돌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

시고 부활하실 것을 잘 표상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의 성질을 보여준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신의 성품에 참예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4.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理想을 보여준다.

언약궤의 재료는 가시나무이다. 가시는 죄된 인간을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창세기 3:17에 의하면 사람이 범죄한 후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 그것은 죄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의 참상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을 다듬어서 순금으로 입힌 것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예하도록 하신 사랑을 보여준다.

“여기서 불로 연단된 것으로 추천된 금은 믿음과 사랑이다”(1보감 477). 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믿음과 사랑을 나타낸다(벧전 1:7).

그래서 언약궤는 믿음의 언약으로 금같이 된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을 상징한다. 옛 모습은 전혀 안보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믿음만 보이는 인격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예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보좌가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려하니라"(고전3:16).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 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사 57:15).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의 상태를 지상에 성소의 언약궤 제도를 통하여 계시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울러 언약궤의 상태는 우리가 이르러야 할 최종적 상태를 계시한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엄숙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시려는 은총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그 이상에 도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즐겨 자신을 맡겨야 할 것이다.

V. 성소 정결과 남은 자손

[시74:1-11] 하나님아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나이까 2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3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밭을 드십시오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4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훤히하며 자기 기를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5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6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8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9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랠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10 하나님아여 대적이 언제까지 훼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11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성경의 예언된 교회의 역사는 성소 정결 사업과 함께 형성되는 교회로 막을 내린다. 그러므로 성소 정결의 주된 목적은 지상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시키는 것이며, 난립한 교회 중에 하나님의 참 교회를 가려내는 것이다. 그렇게 성소 정결 사업을 통하여 재림 전에 지상에 두셔서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남은 자손이다.

1. 성소 정결 봉사

성소정결 봉사에 대한 것은 13장에서 잠깐 공부하였다. 레위기 16장에는(1-34) 성소정결 봉사에 대한 자세한 지시가 있다. 그 정결 봉사를 마칠 때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레16:30)고 선언하셨다.

지성소 봉사는 성소 정결 봉사 곧 이스라엘 전체의 정결 봉사이다. 이날의 봉사로 이스라엘은 모든 죄에서 정결하여진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히 9:7).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허물만을 위하여 정결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인류를 위하여 정결 봉사를 하신다.

이날에 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속죄 제물, 수양=번제물(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한 것), 회중을 위하여 숯염소 두 마리=속죄 제물, 수양 하나=번제물 이렇게 드렸다.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것이며 이것 외에 또 드려야 하는 제물들에 대하여 민수기에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민29:7-11). 그러나 중심적인 것은 레위기 16장의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날 대제사장은 몇 번 성소에 드나든다.

첫째, 자기와 가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러,

둘째, 회중의 속죄제와 번제를 위하여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회중의 속죄를 위하여 두 염소를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여호와를 위한 것과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

아사셀이란 말은 성경에 4회만 사용되었다(레16:8,10,16). 아사셀은 “내어놓은 자, 제거할 자, 분리된 자, 떠나간 자”라는 뜻인데, 경외서인 예녹 1서 8장과 10장에 악한 천사로 묘사되었고 유대인의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악신이라고 말한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이고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회중의 죄에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이미 죄인에게서는 속죄되었으나, 성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나와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죄의 책임을 물어서 광야로 놓아 보낸다. 이 염소는 광야에서 죽는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죄 자체가 없어지고 온 이스라엘이 정결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온전히 정결하여진다.

2.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는 정결 봉사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정결 봉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다니엘 8:14절만 봐서는 안 되고 8-14절을 읽어야 하고 특히 11-14절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불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협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둔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단8:11~14).

2,300 주야가 2,300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2,300년 후에는 지상에 성소가 없다. 그러므로 이때 정결하게 될 성소는 하늘 성소 곧 참 성소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정결 봉사를 예언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때가 1844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미 공부했다.

이 성소가 정결하여 지는 것은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도 해당된다.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참 성소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공부한 사실이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가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봉사이다.

부정하여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작은 뿔이 하늘에 미치도록 커져서

1. 타미드를 제하였다.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번역된 말인데, 원문에는 제사란 말이 없다.

1800년대의 우리의 선구자들은 이것을 제국 로마라고 해석하였다. 초기 문집 가운데서 화잇 여사는 이들의 해석이 옳은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다(초기78p).

작은 뿔이 제국 로마를 정복하고 정치적 세력을 잡는 것에 대한 예언이며, 그 결과로 정교 연합을 이루고 교회를 더럽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교회를 더럽혔다는 것은 작은 뿔의 세력이 제사와 예배를 스스로 차지하고 하늘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속죄봉사를 무시하므로 진정한 속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교의 풍습과 곡해된 예배로 더럽혀진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2.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았다.

작은 뿔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교의 사상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성경의 진리를 변조시켜서 오류를 섞어서 마치 그것이 성경적 진리인양 가르쳤다.

이것은 영혼 불멸론, 영원 지옥설, 일요 성수, 그리스도의 선재성의 부인 (TM78), 사제의 죽죄 등등이다. 사제가 죽죄를 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그렇게 행사하게 되니 당연히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것은 사람들에게 숨겨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하늘 성소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성소를 더럽히는 요소들이 된 것이다. 교인들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사제들에게 가서 고백하였고 사제들은 그들이 용서할 수 있다고 용서를 선언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고, 죽죄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주님의 봉사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게 되었다.

3. 성소를 더럽혔다.

작은 뿔은 하늘 성소에 대한 진리를 묻어 두게 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 연구를 독점하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 연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행사로 하여 성소는 더럽혀지고 헐린 것과 같이 되었으며, 세상은 암흑시대가 된 것이다.

2,300년 후에 하늘에서 주님이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 작은 뿔이 저지른 모든 것을 사정하셔야 하셨다. 그래서 이 봉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봉사이기도 한 것이다. 정결이라는 말 “니츠타크(γάλη)”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낱말이다. 주님은 이때 향하시는 심판으로 짓밟힌 진리를 정결하게 하여 밝히시고 세상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정결한 참 교회임을 밝히셨다. 이렇게 정결하여진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는 들은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심판이다. 그러므로 2,300 주야 끝에 성소 정결로 행해지는 심판은 성소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죄 자체를 도말하여 없이하는 것보다 훨씬 그 범위가 넓은 것이다. 그것은 성소 자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과 제사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과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다. 이것은 하늘 성소에 전가되어 남아 있는 회개한 죄인들의 죄

를 도말하여 사단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영원히 징죄하고 없이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하늘에 성소가 있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실제적인 죽죄 봉사 곧 충보의 일을 하신다는 엄숙하고 분명한 사실을 밝히며, 또 땅에 떨어져 짓밟힌 진리를 바르게 하여 교회가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 가르침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며,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 성전을 바른 진리대로 삶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다.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는 제비 뽑아 구별되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제비 뽑는 것은 심판의 행위이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16:33).

두 염소는 보기에도 똑같다. 그러나 제비로 하나님의 것과 아사셀의 것이 구별되었다.

이것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성질의 한 면을 보여주는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사람의 보기에도 똑같아 보여서 사람이 구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리를 밝히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과 아사셀의 것을 드러내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평놓였더라 그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았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7:9~14).

이 말씀은 심판을 베푸신 하늘 심판정의 광경을 계시한 것이다. 말씀에서 11절은 심판의 주 대상이 작은 뿔인 것을 가

리킨다. 성질상 8장의 작은 뿔과 동일한 세력이다. 그리고 7:13,14은 예수께서 성소 정결 봉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광경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는 지상에 있는 작은 뿔의 성질을 드러내어 그가 짓밟은 진리와 더럽힌 성소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가르친 진리대로 따르는 참 교회를 드러내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위의 말씀에는 또한 책을 펴 놓으시고 살피시는 장면도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심판장으로 하늘의 기록부를 살피시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록은 이미 회개한 죄인들의 회개한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살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 죄들을 죄의 장본인인 루스벨에게 책임을 묻는다. 루스벨은 자기로 인하여 죄를 지은 모든 회개한 사람들의 죄와 자기 스스로의 죄를 지고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히2:14). 이렇게 하시므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이전 것은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사65:17). 즉 죄와 죄에 속한 것들은 그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도말된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억에 남겨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죄 자체가 없어질 때 그것도 다 없어진다. 이것이 책을 살피시는 심판의 중심 내용이다. 물론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죄와 함께 없어지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심판의 근본적인 것을 아닌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심판으로 경결하여진 교회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경결봉사가 하늘 성소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모든 봉사가 세상에 있는 그의 교회를 위한 것임을 계시록 1장이 잘 밝혀주지 않았는가? 주님은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며 그 촛대는 바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아닌가.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봉사가 모두 세상에 있는 그의 교회를 위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계시이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경결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결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

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계3:14),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인데, “의로운”을 뜻하는 “디게아”는 심판으로 의롭다고 판결된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늘 지성소 봉사로 밝혀진 진리를 따라 형성되는 교회이다. 이렇게 심판으로 정결하게 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일으키도록 심판하시는 때에 대한 예언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교회가 알아야 심판으로 선포되는 바른 진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행17:31).

이 말씀에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다니엘은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고 말하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정으로 들어가는 광경에 대하여 말한다. 2,300 주야에 대한 계시는 그 첫 부분인 70 주일의 끝에 하늘 성소 봉사 시작의 때를 계시하고 2,300 주야의 끝에는 하늘 지성소 봉사 시작의 때를 계시한다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지성소 봉사 곧 성소 정결 봉사는 하나님의 염소와 아사셀의 염소를 분명히 구별하여 드러내었다.

다니엘 8장에 하늘 성소를 더럽히는 작다가 크게 된 뿔은 염소에서 나온 뿔이다. 어쩌면 속죄일 봉사에 회중을 위하여 속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양이 아니고 염소인 것은 다니엘이 계시 중에 본 염소의 뿔로 상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인지도 모른다. 양과 염소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이었다. 그래서 사단은 염소로 가장하였다. 곧 하나님의 교회로 가장한 것이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 이 가장한 모습이 제비 뿐 늘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벧전4:17)라고 말씀 하신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다(딤전3:15). 그러므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2,300 주야 끝에 있는 성소 정결 곧 심판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뿔로 표상된 것은 가짜 교회이다.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세상에 군림하여 1500여년을 지내 온 것이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드러내는 심판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성소 정결 심판의 중

요한 부분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심판하여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드러나게 하는 일인 것이다. 그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나 심판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계11:19).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은 지성소이다. 하늘 지성소를 보이며 심판의 표상인 번개, 음성들, 뇌성, 지진, 우박 등을 보였다.

심판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언약궤 안에 있음을 드러내시고, 심판으로 드러난 진리를 따라 형성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교회인 것을 드러내셨다.

이 성소 정결 봉사로 역사의 종말에, 이 세상에 진리를 위하여 남은 교회가 형성된 것이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12:17; 14:12 참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성소 경결 봉사를 통하여 역사의 종말에 형성된 하나님의 참 교회 지상에 있는 참 성소로서의 교회이다.

지구에 죄가 들어온 후 성소를 통하여 구속의 길을 보여주시고, 역사의 진행을 계시하시며, 그 예언의 성취로 바로 예언된 그 때에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 곧 성소 정결 봉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진리 교회이다. 정결하게 되어 드러난 모든 진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면 우리는 라오디게아가 될 것이고, 개인의 취미와 욕망과 사상으로 거절하면 우리는 키질하는 손에 의하여 남은 자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

우리가 조사심판 곧 재림 전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만 생각하는 것은 심판의 다중적인 성격을 오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기록된 책을 살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였으나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 책에서 도말하여 영원한 멀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회개한 죄인들의 기록부에 남아 있는 죄를 다 도말하여 회개한 사람들에게 죄와 죄에 속한 것은 단

하나라도 다시는 기억되지 않도록 하시는 사랑의 봉사를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될까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어물어물 지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께서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해 주시는 사랑을 인하여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심판의 기별은 복된 기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리를 밝혀서 거짓 것에 속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인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서 그날 정결한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다시 성소 강론

1. 아버지 집

눅2:41-50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 예수께서 열두 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48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 양친이 그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序; 우리 중에 나는 왜 나인가 라고 생각해본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이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잃어버린다.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집을 떠난 상태에 있게 되어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면 아버지를 찾기까지 자기를 찾지 못한다.

인류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

1. 아버지와 아버지 집

[신32:6]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눅3:38]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시니라.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면 아버지 집이 나의 집이다.

[창2:7-15]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8 여호와 하나님
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 같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 그 땅
의 금은 정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14 셋째 강
의 이름은 헛데겔이라 앗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
브라데더라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가? 정원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겔28:13]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흥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흉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흥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다.

[28: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
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
도다.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의 성산이다. 동산이라는 말은 “간”
이고 성산이라는 말은 “할 코데쉬”이다. 성소라는 말과 같은의
미로 볼 수 있다. 에덴은 하나님의 성산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보니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었다.

정원에는 멋진 네 개의 강이 흘렀다. 그 이름은 참으로 복음
의 풍성함을 보여준다.

비손=차고 넘친다. 充溢

기혼=흘러나온다. 分與

헛데겔=급히 흐른다. 迅速

유브라데=달다. 甘味 滿足

이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서
차고 넘쳐서 온 지구에 흘러나가되 신속히 퍼져나갈 것이며,
그 결과는 달고 만족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태어나기로 의논한 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창조는 일방통행이고 출생도 일방통행이고, 부모의 사랑도 일방통행이다. 그런데 부모의 이 일방적인 선택은 사랑의 발로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에게 일임하였다.

이런 상태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의 상태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유혹자가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의 선택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자식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자식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말씀해 두셨다. 죽는 것이다.

[창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2. 아버지 집에서 떠남

[창3:22,23]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같게 하시니라.

[눅15:12-17]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4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간단히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아들이 돼지가 되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 돼지가 된 것이다.

[시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롬1:20-23]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평계치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마8:30-32]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 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32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돼지처럼 된 사람들은 귀신에게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를 잊은 아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귀신은 사실 곧 죽을 존재들이다.

[마8:29]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런 존재도 아닌 존재에게 불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결과는 완전히 존재를 상실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서 존재하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의로 살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떠나 집도 잊고 자기의 정체도 잊고 돼지 같은 짐승이 되어버렸으니 그것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는가?

3. 아들이 돌아키기 위하여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다.

[창3:21,24]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

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눅15: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 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날마다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린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신 모습이다. 아담이 이것을 볼 때마다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셨다.

아버지 집에는 평안과 행복과 의만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피가 필요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살기 위하여, 아들 대신 피를 흘리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 설치해 주신 성소이다.

사람이 에덴동산에서 나온 후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게 되었을 때 세상은 한 번 홍수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때 에덴동산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이제 그 사랑의 표시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 표를 이제는 제단과 제사와 성소로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자식을 생각하는 얼마나 극진한 사랑인가? 아들을 향하여 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한량없이 베풀시는 아버지를 보도록 계속 돌이키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는 제도이다.

[시78:38]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시85:3]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기에 ‘돌이키다’는 말이 ‘슈브’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도록 결정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슈브’라고 한다. ‘슈브’는 ‘회개’라고 번역되고 ‘돌이키다’라고 번역된다.

[눅2:46,49,50]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물기도 하시니 49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것을 아버지 집이라고 가르쳐주셨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 완전히 비울 때에 성령께서 그를 깨닫도록 인도하신다.

이제 돌이키는 것은 아들 몫이다. 돌이키는 것은 행동이고, 돌이키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이다.

아들이 돌아가기 위하여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향하여 돌이키셨기 때문에 아들이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

[잠23: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찌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시7:12]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으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겔18:30]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여기 회개라는 말이 바로 '슈브'이다. 돌이킨다는 말과 회개라는 말이 같다. 구약에서는 돌이킨다는 말이 '나함'도 있다. 의미상으로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신약성경에도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라고 번역된 말은 주로 '메타노이아'인데 '생각을 고치는 것'을 뜻한다. 그 고친 생각의 결과로 돌이키게 된다.

[눅15:17-20]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얄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 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4. 성소와 제사

[히9:1-14] 첫 언약에도 섭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나니 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찬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날날이 말할 수 없노라 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섭기는 예를 행하고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 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 이 장막은 현재 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섭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총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총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섭기게 못 하겠느뇨.

성소는 아버지 집이요, 제사 제도는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신 것이다.

[요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10:19,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

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성소는 바로 이것을 도해를 통하여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신 복음이다. 성소를 알면 복음을 바르게 깊이 깨닫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된다.

[시73:16,17]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때문에 아버지도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동거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을 화목제라고 한다.

[롬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실이니.

여기 화목제라고 번역된 말은 죽죄소라는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다. 만나되 두렵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만난다.

[눅15:23,24]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식구가 함께 만나 즐거워하기 위하여 송아지는 피를 흘렸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서 화목하고 기쁨을 나누며 사귀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이다.

[롬5:10,11]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께서는 12세 때 성전에 가셔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사람 부모를 따라 사람 아버지 집으로 가시지 않고 참 영원하신 아버지 집에 계셨다.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시90:1-3]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
사오니.

[시90:12-15]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14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 우리를 곤
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달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
소서.

우리가 성소 공부를 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귀한 경험
을 하기를 바란다.

2006년 5월 8일 1:05pm.